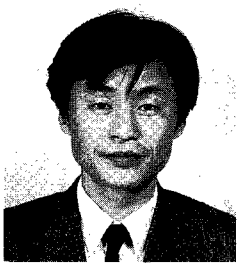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양 경 덕
(주)과학축산 이사

1. 지금 우리의 모습

"현재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계인들 중 15% 내지 20% 만이 계속 양계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할 것인가? 세계시장에서 고품질의 양계산물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며, 2만불 국민소득 대열에 함께 서서 국내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수입 축산물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유리한 해외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면서 수출까지 하는 21세기 한국 양계산업을 이끌고 나갈 양계인은 현재 양계인의 15% 내외일 것이다 라는 예상은 터무니 없는 것일까?

근래 각종 양계질병의 만연과 높은 수준의 폐사율,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추백리와 티푸스의 확산 등, 혹자는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온 양계산업이 이제와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수의과학연구소 등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95년 전반기 양계용 백신 사용실적은 필요량의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 양계산업의 현주소인가? 닭티푸스와 추백리가 확산되고 있고, 낙후된 시설에 따른 환기부족과 과밀사육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복수증(Ascites)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

는 현 실정을 보면서 21세기 한국축산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심정에 빠지게 한다.

2. 문제는 안에 있다.

그동안 국가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해온 중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 일변도의 짧은 국부축적의 노정에서 형성된 기형적인 산업구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농촌은 피폐화되었고 오랜 농업국가로서 형성되었던 전래가치관의 일시적인 붕괴는 생태계 파괴이상으로 건전한 국민의식의 고사(枯死)를 초래했으며, 뿌리채 말라버린 고목에는 과소비와 사치풍조의 독버섯아 만연되어 있다. 그 가운데 극도로 오염된 환경속에서 상대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과민할 정도의 욕구는 과소비 이상으로 병적이라할 정도의 건강식품 욕구와 건강우려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분야는 자생적으로 부가가치가 그중 높은 축산업 쪽으로 집중되면서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 소비자 욕구와 맞물려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양과 질, 가격 모두에서 세계시장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과소비와 사치풍조가 가져온 외제선호나 상대적인 자기경시 풍조의 국민의식의 장벽도 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약삭빠른 상혼에 의한 무분별한 수입과 함께 이상구 신드롬이니, 식수원 오염이나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의해 한국 축산업이 얼마나 힘없이 무력하게 당할 수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보아온 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노력없이 아직도 시장가격 변동이나 소비량 증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의 한국축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방접종 수준이 15% 내외라니! 일종의 고산병(高山病)이라 할 수 있는 복수증 발생율이 5~23%에 달하고 있다니!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치료용 약제의 오남용과 그에 따른 식육조직의 약재잔류가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축산물 생산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가설이라 할 것인가? 자국시장의 기반확보 없이는 해외시장 개척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듯이, 자국 소비자들로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닐까?

국제 경쟁력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축산의 현 실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오히려 문제시 되어온 외제나 고급품에 대한 선호 또는 건강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소비패턴에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

3. 생존의 마지막 보루, 건강축산물 생산

질병의 상재화 상태속에서 적절한 예방대책으로써 백신접종이나 약재의 예방투약 및 철저한 환경위생 소독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은 질병확산과 만연에 무방비인 채로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있다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질병이 감염된 뒤에야 부랴 부랴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이약 저약을 긴급 처방하고 있는 것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양계산물에 약재잔류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양계산물의 약제잔류 문제가 언론보도 등에 의해 노출되어 도마위에 오를 경우 국내 소비자로 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수입 축산물에 대한 규제 장치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수입개방의 정도나 속도를 더욱 촉진시켜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상황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깨끗한 고급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추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자기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값싼 수입 축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 기반위에서 유통전략이나 차별화 전략 등의 마케팅 전략들을 구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국내시장 장악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마지막 카드마저 손상시켜 버린다면 절대적으로 경쟁력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 축산의 존립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설 땅을 잃고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건강 고급축산물생산, 이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다.

4. 양계산업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

주곡인 쌀과 축산물의 최소한의 생산기반의 확보는 국가의 균형된 발전과 번영은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건강고급 축산물의 최소한의 생산기반 확보란 다시말해 유사시 수입에 의존할 필요없이 국내생산기반 만으로도 자족, 자립 수준으로 손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된 세계화시대에서 이러한 최소 생산기반의 확보 또는 확충의 기본은 건강 고급축산물의 생산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나 세계 시장을 상대로한 경쟁력의 갭(Gap) 즉, 생산성 차이를 서둘러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업계에서 다양한 행사나 지면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해 왔다. 문제는 사료 위생에서부터 종계장, 부화장,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제약업체, 축산기자재 및 단미사료업체 등 각 부분별, 단계별 종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깊이 가슴으

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강령이나 목표항목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수단 또는 구호도 한낱 공염불로 끝나고 야외 현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질병 예방에 대한 개념 조차 모르고 있거나 비용면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일부의 몰지각과 무관심에 의해 생산성 향상이나 시설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진정한 양계인들의 노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막대한 피해를 확산, 전파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성 향상이나 실제적인 사양, 방역관리에 관한 전문용어에 앞서서 빈곤의 악순환이니, 총체적 부실이니, 구조적 모순이니 하는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양계산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시점에서 삼풍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계의 추백리(SP)와 가금티푸스(SG) 양성율이 35%, 만성호흡기질병(MG) 양성율이 88%나 된다는 조사보고가 우리 양계산업의 윗물을 보여주고 있고, 수직감염은 물론 낙후된 시설과 허술한 방역체계 속에서 광범위한 수평전파가 더욱 문제시 되고 있으며 흰 닭들이 누렇게 염색이 된듯 깃털이 다 젖어 있는채로 숨이 턱턱 막히도록 습하고 탁한 공기로 가득찬 비닐하우스 계사내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고있는 닭들의 폐사율이 10% 내외라면 목숨이 질기긴 질긴 모양이다.

구조적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는 위탁 종계사육의 증가나 부화장 품질보증 책임이 면제된 유통업을 통한 초생추 판매형태, 산란계 중추농장의 상업적인 육추와 허술한 방역관리 등등 생산성 향상, 무창계사, 자동환기시설, 자동급이시설 그거 좋은줄 누가 모르느냐, 그거할 돈 있으면 내가 미쳤다고 닭 똥구멍 쳐다보고 있겠느냐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와서 양계해라, 이런 말들이 귓가에 윙윙 거린다. 현재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85%의 양계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쉽고 편하게, 골치아픈거 신경안쓰고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 언제라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리저리 밀려온 우리의 실상이 이러한 것일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가?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것은 어느 누가 어느 한쪽에 손대어 해결될 것이 아니다. 총체적, 구조적 문제가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현재 실정에서 각 단계별, 부문별로 양계산업 종사자 스스로에서부터 관계기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의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가장 경쟁력있는 구조적 형태로의 재편, 그야말로 전략적 리스트럭춰링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국가 경영의 시대에 양계산업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영전략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 등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는 그러한 혁신된 틀 속에서 비로소 설정될 수 있는 목표일 것이다.